

당쟁과 명청문학 중 '임진왜란' 서사

—심유경(沈惟敬) 등을 중심으로

만청천(만윤보, 양주대학 문학원)

[요약]

명대 문학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인물에 대한 묘사는 당파 간 다툼, 남북 갈등, 문무 모순 등의 요소가 깊이 침투하여 조선 원조전쟁과 관련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 큰 분기점이 나타났다. 이는 명 중엽 이후 문학 창작이 보여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청대에는 중일 양국이 단절 상태에 있었고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흐려져, 그 서사는 주로 허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인들의 공명 입세 꿈을 표현했으며, 당쟁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었다.

[키워드]

임진왜란; 문학작품; 인물형상; 당쟁

1592년(명 신종 만력 20년, 일본 후양성천황 천정 20년, 조선 이씨왕조 선조 25년) 3월, 일본 관백(대장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입전쟁을 발동하여 조선을 경유해 중국을 공격하고 '대동아제국'을 건설하려 했다. 조선국왕 이연의 요청에 따라 명정이 동정을 파병하여 조선에 참전했고, 중·조 연합군이 7년간 싸워 마침내 왜적을 조선에서 축출했다. 이 전쟁에 대해 참전 3국의 명칭이 달랐는데, 명왕조는 '동정 어왜원조'라 하고, 조선은 '임진·정유왜란'(임진은 만력 20년 즉 1592년, 정유는 만력 25년 즉 1597년)이라 하며, 일본은 '분록·경장의 역'(분록, 경장은 일본 후양성천황의 연호)이라 했다. 원조전쟁은 영하의 역, 파주의 역과 함께 '만력 3대정'이라 불리

며, 참전 3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및 역사 진로에 모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오랫동안 '임진왜란'은 관련 국가 문학예술 창작의 인기 소재였으며, 시대 변천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받아 어느 정도 문학예술의 번영을 촉진했다. 그러나 당시 중·조·양국 모두에 격렬한 당쟁이 존재했고, 당쟁 의식이 깊이 '임진왜란'의 역사와 문학 구성에 침투했다. 본 논문은 '임진왜란' 중 몇 중요 인물을 예로 들어 당쟁이 문학 인물형상 창조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다.

1. 심유경(沈惟敬)

심유경은 사서와 문학에서 모두 당시와 후세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였다. 봉공 실패 후 심유경은 추궁받아 사형에 처해졌다. 『명신종실록』에서는 "유경은 시정의 무뢰한으로 충신염결의 행실이 없어 의지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그를 한간이라 하여 "심유경은 무적(無籍) 곤도로 오래도록 왜장과 통했다"고 했다.

호응린의 필기소설 『갑을잉언』 중 "심유경" 조에서 심유경이 병부상서 석성과 알게 된 경과를 기록했는데, 다음과 같다:

〉 심유경은 낙백하여 연중에 우거했는데, 우사 옆에 한가한 집이 있어 물장수 심가왕을 거주시켰다. 가왕은 본래 낙청 조상길가의 창두로 어려서 왜노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가 18년간 있다가 바다를 건너 돌아와 다시 연경으로 와서 조씨에게 의탁했는데, 조씨가 쓸 일이 없어 물장수로 자급했다. 유경은 한가할 때마다 가왕과 왜중의 정속을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향어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 마침 석대사마가 동사를 경략할 때였는데, 석씨의 총희의 아버지 원모가 항상 유경과 노닐었다. 유경은 매일 원씨와 왜중의 일을 말했는데 마치 몸소 가본 것 같았다. 원씨가 석씨에게 고하니 석씨가 곧 불러 만나 이야기했는데 크게 기뻐하며 곧 유격장군을 수봉하여 일본에 사신으로 보내니 봉공의 설이 있게 되었다. 유경의 처는 진씨로 이름이 담여인데 본래 기생이었다. 유경이 멀리 사신으로 가자 석씨가 매번 문에 가서 위로했는데, 심부인이라 부르기까지 했으니 참으로 능히 천한 자를 낮춘다고 할 수 있었다.

심덕부보다 약간 나이가 어리며 호응린과 통가지호가 있었던 심덕부는 『만력야획편』에서 더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 심유경은 절강 평호인으로 본래 명가의 지속이었다. 소년시절 종군한 적이 있어 갑인왜사를 보았다. 후에 빈곤해져 경사에 들어가 소련을 좋아하여 방사 및 무뢰배와 어울렸다. 석사마의 첩의 아버지 원성자도 또한 노화를 즐겨 인해 심씨와 친했다. 마침 온주인 심가왕이 왜적에게서 도망쳐 돌아와 자신을 심씨에게 팔았는데, 어떤 이는 장주인이라 하며 실은 일본에 항복했다가 입구시 포로가 되어 옥에서 탈출했는데 심씨가 얻어 성명을 바꿔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없었다. 가왕은 이미 왜사에 익숙했고 또 관백이 다른 뜻이 없어 처음에는 중국에 조공하려 했는데 조선에 막혀 이 때문에 거병했으니 다만 절충하면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사마에게 알렸다. 유경은 당시 나이가 이미 67세로 긴 수염에 위대한 모습으로 고려 변연했는데 사마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신기삼영 유격장군을 제수했고, 심가왕도 지휘를 배수받아 그 무리 10여 명과 함께 휘하에 충원되어 일본에 들어갔다. 사마가 이미 봉공사를 위임하니 말한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없었고, 언로가 교공해도 동하지 않았다. 심이 부산에 머문 지 1년여, 정에서 제사 2인을 보내 가서 봉했는데, 유경을 선유사로 하여 함께 바다를 건넜다. 임희 이소후가 이미 도망간 후 조에서 부사 양방형에게 명하여 정을 충당하게 하고 곧 유경으로 부사로 대신하게 했다. 바다를 건너 산성주에 이르러 초초히 봉사를 마쳤다. 그런데 왜가 조선에 머무른 자들이 끝내 가지 않고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사마가 조지를 위배하고 왜를 아첨했다 하여 하옥되고, 심이 독부 형사마에게 포획되어 경으로 와서 참형에 처해졌으며, 처자는 공신에게 주어 노예가 되었다. 유경은 아들이 없고 처는 남기 진담여로 젊을 때도 유명했는데 당시는 이미 늙었다. 심이 주살된 후 부곡이 성산하고 담여와 가왕이 모두 종적을 알 수 없었다.

위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심유경은 "본래 명가의 지속"으로 세가의 자제였는데, 가정 연간에 종군하여 항왜한 적이 있었고, 후에 가도가 중락하여 하천으로 떨어졌다. 단사소경을 좋아하여 연줄로 병부상서 석성에게 붙어 유격장군 함으로 명일 화담

에 참여했다. 심덕부는 가흥인으로 심유경과 같은 고향이라 할 수 있지만 심유경의 항왜사를 기록할 때 말이 상세하지 않아 『천계평호현지·심곤전』으로 보충할 수 있다:

〉 가정간에 (심곤이) 문호로 역을 충당하여 은미를 집수했다. 흉년을 만나 죽은 자가 베개처럼 늘어서 있자 곤이 가재를 다 흠어뜨리고 수집한 은미와 함께 기민을 구료했는데, 관이 독촉하니 막막하여 응할 수 없어 감히 옥중에서 죄를 받았다. 마침 왜구가 갑자기 무호에 임하니 총독 호공이 용감한 선비를 모집했는데, 곤의 이름을 듣고 옥에서 내어 모집 아래 머물게 했더니 의논이 꽤 호의에 맞았다. 하루는 왜가 왕강경에서 싸워 우리 군이 불리했고 호도 포위되었는데, 곤의 아들 유경이 갓 약관 이어서 단기로 포위 중에 돌입하여 호를 껴안고 나왔으니 호가 더욱 곤을 애중했다. 천총 직을 수여하고 병 3천을 부령했는데, 부자가 계책을 세워 군관을 위로한다고 가장하고 독주를 가득 싣고 공문을 손에 들고 왜영을 지나갔다가 왜가 우리를 추격할 것이 가까워지자 부자가 배를 버리고 물을 건너 달아났다. 왜가 술을 얻고 크게 기뻐하여 다투어 마시니 죽은 자가 무수했다.

조선 문인 신희의 『천조조사장신선후거래성명기자임진지경자』에도 심유경이 "간첩을 써서 왜중을 독살했다"는 기록이 있다. 알 수 있는 것은 심부 심곤이 담당을 감당하는 호협지사였는데, 가재를 흠어뜨리고 관미를 임의로 동용하여 재민을 구제하다 입옥했으나 후에 호종헌의 구원으로 출옥하여 막하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왕강경 전투에서 심유경은 단기로 호종헌을 구출했고, 부자가 또 계책을 세워 독주로 적을 무수히 죽였으며 큰 공을 세웠는데, 다만 이 공로는 총독 호종헌의 머리에 계상되었다.

소흥인 제갈원성의 『양조평양록』 권4 "일본상"에 심유경 봉공사를 기록하기를:

〉 석사마가 심유경의 사설에 현혹되어 다시 왜영에 보내 봉의를 의논했다. 유경이 부자를 받들어 경락을 요양에서 뵈었다. 응창이 말하기를 "왜가 봉공을 구하면 마땅히 비사로 궐을 향해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조선을 깨뜨려 우리를 요구하는가? 나는 명을 받들어 왜를 토벌하니 오직 전쟁만 알 뿐이다. 너가 가서 왜를 보거든 반드시 봉공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조선 일국을 다 돌려보내고 전군이 부산으로 물러나 명을

들어야 하며, 표를 갖춰 신하라 칭해야 하니 내가 마땅히 칭할 것이다. 지금 의논하는 것이 평양만 물러가는 것은 이는 계책으로 우리 군사를 늦추는 것이니 전쟁이 있을 뿐이다! 너는 잘 목숨을 보전하고 초초히 하지 말라!"고 했다. 유경은 위위하며 갔다. 응창이 계산하기를 왜가 스스로 조선을 깨뜨린 것이 심하다고 했는데... 마침 유경이 왜영에서 오니 의논이 처음과 같았다. 응창이 노여워하며 꾸짖어 말하기를 "적이 멸망할 날이 없는데 어찌 감히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가?"라고 하며 결박하여 백 대 치라 명하고 장차 죽이려 했다. 제독과 찬화가 유경을 석사마가 보낸 것이니 죽이면 화합하지 못해 일을 망칠까 두려워 힘껏 청하여 이에 죽이지 않았다. 제독에게 속하여 군중에 가두고 16일을 택하여 맹세하고 강을 건너며 군율 32조를 반포하니 일군이 숙연했다.

제갈원성의 묘사에서 송응창은 화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유경이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당시의 정사, 야사 및 필기소설에서 심유경은 무죄한의 형상이고, 다른 시문과 통속소설 희곡에서는 또 한간으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력연간 가흥인 이응징의 『부산기사』 시에서 심유경 봉공지사를 읊은 것 중 한 수가 있다: "절을 가지고도 소속국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는데, 화용을 한중행의 말을 잘못 들었다. 이에 윤복이 단봉을 헛되게 하고 도리어 정기를 끌어 옥랑을 가리켰다. 조선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고, 급히 본산을 신중히 조정에서 하라." 시 중의 "한중행"은 바로 한대의 중행설로, 그는 원래 궁중 태감이었는데 한문제 때 흉노와 화친할 때 그가 수행으로 공주를 대막까지 호송했다. 한정에 보복하기 위해 그는 흉노에 투항하여 선우를 위해 계책을 세우고 동포를 해쳤다. 여기서 분명히 심유경을 은사한 것이다.

대략 천계연간에 성서되고 사명산환계어부가 편한 전기 『연남기』는 분명히 심유경을 한간 형상으로 소조했다. 이 극은 지금 실전되었는데, 이 극을 읽은 동강의 소개에 따르면 대의는 서가와 문빙이 혼약이 있었는데, 서가가 한번 취중에 심유경을 득죄시키자 유경이 원한을 품고 떠났다는 것이다. 일본 관백 평수길이 조선을 침입하자 병부상서 석성이 서가를 항왜총수로 추천했는데, 심유경이 번역을 맡아 그가 기회를 타서 서, 문의 혼인을 파괴하고 석성에게 미인 문빙을 관백에게 바치라고 건의하면

즉시 파병할 수 있다고 했고, 석성이 그 말에 현혹되었다. 서가가 소식을 알고 급히 병을 이끌고 영전하여 수길을 크게 패배시키고 유경을 사로잡아 문빙을 구해왔다. 마지막에 석성은 옥중에서 죽고 심유경은 참형에 처해지며 서가는 정해후에 봉해져 조서를 받들어 완혼했다. 동강은 극중 서가가 고양점을 가리키고 참모 양원이 찬화 원황을 가리킨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양점도 역시 수길을 크게 패배시킬 수 없었고 석성도 일찍이 친히 장수가 된 적이 없으니 모두 연식이고 실사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록 역사상의 인물과 하나하나 대응할 수는 없지만 심유경은 실지한 것으로, 그는 화의할 때 수길에게 방물을 경헌하여 기군육국하고 또 사사로운 복수를 끼어 개인적 원한을 국가 이익 위에 두었다. 작자 "사명산환계어부"는 영파 일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명말청초 소설 『도무한평』에서도 심유경을 두 곳에서 언급했다. 12회에서 부여옥이 남편 위진충이 소인 전이경과 교제하는 것에 분개하여 위충현을 욕하기를 "너는 참으로 금수로 사람이 못 된다. 내가 말하건대 너는 전가 짐승을 따라가니 단연코 좋은 일을 해낼 수 없다! 그 짐승이 경성에서 석병부와 심유경과 통변매국하여 심유경 일가의 성명을 보내고 석병부도 그 손에 죽었으니 그가 비로소 여기로 도망쳤다"고 했다. 24회에서는 전이경과 심유경이 서로 결탁하는 것을 묘사하여 "다만 그가 심유경과 동약이어서 심유경이 일을 망치니 그가 밖으로 도망했다"고 했다. 여기서 전이경, 석성, 심유경을 모두 "통변매국"이라 하고, 전이경이 더욱 간첩하여 석성과 심유경을 해쳤다고 했다. 『도무한평』의 작자는 역시 강절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명말 강조인 전겸익의 붓 아래에 이르러 심유경의 형상이 비로소 반전되기 시작했다. 전씨의 『동정이사록』과 『안찰공소공묘지명』 두 문은 모두 심유경에 대한 동정을 표현했다. 『동정이사록』에서 원조부대가 출발할 때를 쓰니 원황이 산음인 풍중영과 오강인 금상을 막하에 라치했다. 먼저 "석사마가 보낸 변사 심유경 3인이 왜영에 들어가 그 요령을 얻으니 행장이 철병의봉공을 허했다"고 했지만 중영이 이여송이 "충을 믿고 걸오"하여 의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가 반드시 유경을 속여 봉기를 빌려 평양을 습격할 것인데, 습격해도 이기지 못하면 군을 패하고 습격하여 이기면 봉을 패한다." 이여송이 공격한 평양은 빈 성이었고 행장이 이미 주동적으로 철퇴했으며, 명군이 이에 조선인을 죽여 공을 보고했다. 벽제관지패 후 명군과 일군

이 상지 단계에 들어가자 송응창이 풍중영과 금상을 보내 가등청정과 담판하게 했다. 중영이 삼촌불란지설로 청정을 퇴군시켰다. 금상은 왜구 90여 명을 격살하고 왜장 1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전후 귀국하여 두 사람이 서공을 얻지 못하고 북경에서 늙었다.

『안찰공소공묘지명』에서는 "만력간에 동사가 오래 결정되지 않아 중외가 팔을 걷고 주전하여 봉의를 방해했다. 그런데 석사마가 보낸 설사 심유경이라는 자가 꽤 왜의 요령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사가 늙고 장이 교만하여 뜻이 전투에 있지 않았고, 겉으로는 유경을 죽여 사마를 넘어뜨리려 하고 은밀히는 또 유경에게 맡겨 왜를 누그러뜨리려 했다"고 했다. 마지막에 감탄하기를 "아! 유경은 법상 반드시 죽어야 했다. 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고정 죽고, 왜가 물러나도 역시 죽는다. 왜가 물러나서 사람들이 이것을 유경에게서 나온 것을 알면 더욱 빨리 죽는다"고 했다. 보아하니 전겸익은 은밀히 항전을 원하지 않는 고급 장령들을 공격했는데, 그들은 심유경을 죽여 병부상서 석성을 넘어뜨리려 하면서 또 심유경을 이용해 화담하려 했다. 전겸익은 심유경의 설왜퇴적지공을 긍정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두 "변사" 풍중영과 금상의 광휘로운 형상을 소조했다.

청 강희연간 가흥인 성풍이 편찬한 『가화정현록』 권40 『심유경』에서 이여송이 심유경이 조사와 함께 가서 봉하는 기회를 타서 군을 이끌고 뒤따라 일구를 습격하여 평양을 수복했다고 썼는데, 이여송의 "소부 요병이 여인의 목을 베어 공을 바쳤다"고 했다. 심유경이 이여송을 꾸짖어 화담을 파괴하고 이미 항복한 적을 죽였다고 하니 "여송이 크게 한했다"고 하고, 얼마 안 되어 여송이 벽제관에서 크게 패하고 또 남원에서 패했다. 이때 상속인 소응궁이 산동안찰사로 조선 군무를 감독하며 유경에게 명하여 서신을 수정하여 관백에게 보이니 수일이 안 되어 왜가 물러갔는데, 유경을 탄핵하는 자가 더욱 많아져 응궁이 힘써 다투었으나 얻지 못하고 끝내 사형에 처해졌다. 후에 동사가 평정된 후 어떤 사람이 의논하기를 "유경이 마땅히 죄가 없다 하니 희묘시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그를 칭하는 자가 있었다"고 했다. 당시 남방 세력은 가흥인, 찬화 원황을 대표로 하여 이여송이 선인을 죽여 공을 가냈다고 탄핵했다. 성풍은 평양 수복, 일군 철퇴를 심유경의 공으로 돌렸는데, 남파와 주화파의 관점과 완전히 같고 심지어 심유경지공을 분식했다.

그렇다면 심유경에 대한 서사가 왜 이렇게 갈라져 있을까? 이는 사실 만명 격렬한 당쟁과 관련이 있다. 개전 전후 명정 내부에는 '주화파'와 '주전파' 두 파가 존재했다. 이광도의 연구에 따르면, 임진전쟁 기간 명일 화담의 지지자는 주로 내각과 병부였다: "봉공일관에서 중조의 논의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오직 왕각로(왕석작)만이 허가할 만하다고 여겼고, 석상서(석성), 고충독(고양겸)도 역시 모두 주장했다", "봉공에서 조의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장각로(장위), 이제독(이여송), 고군문(고양겸) 등 5-6명과 호병부가 모두 봉공을 허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지만, 기타 과도 등관들은 죽음으로 다투었다."

석성이 "시정무퇴" 심유경을 담판 대표로 임용한 것에 대해 "응창의 군사가 늙어 성공이 없어 또한 기꺼이 책임을 풀고자 했다. 그러나 왜가 많이 사기쳐서 병을 철수하면 변이 생길까 걱정했다. 기이하여 심유경으로 하여금 다시 왜영에 들어가 사표를 재촉하고 급히 일을 마치려 했다"고 했다. 송응창의 찬화 원황도 그의 관점에 부화뇌동했는데, 『전북서』에서 일찍이 말하기를 "심유경이 왜를 설득한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만 역시 전적으로 거짓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역생의 계책이 행해지면 한신이 공이 없으니 이것이 제장들이 지지희희하는 이유이다. 은밀히 생각건대 왜는 교활하고 간사하여 계략으로 취할 수 있지만 힘으로는 이기기 어렵다"고 하며 호종헌을 예로 들어 절강 전경의 왜구를 소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여송은 원래 주전파였지만 "벽제대패 후 혼이 흩어지고 담이 깨져 이에 비로소 두려워하여 굳은 뜻으로 오직 봉공만을 도모하고 다시는 전투를 말하지 않았다." 차보 장위는 강서 신전인으로 조지고와 모두 신시행의 밀천으로 입각했는데, "위와 지고가 서로 후선했다." 그는 처음에 조지고를 지지했지만 후에 다른 각신인 절강 은현인 심일관과 함께 명일 의화를 반대하고 대일 작전을 주장했다으며, 당시 연관들도 주전했다.

만력 22년(1594) 5월, 수보 왕석작이 "국본지쟁" 사건으로 사직하고 조지고가 수보가 되었다. 사서에 조지고는 "유이나(柔而懦)하여 조사들에게 경시당했고 육평이 사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전쟁 기간 병부상서 석성이 강력히 의화를 주장했다고, 조지고도 "또한 무사하기를 기대하여 서로 화응했다".

만력 22년(1594) 9월 14일, 조지고가 만력황제에게 『답유봉사』를 상소하여 명일

의화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아뢰었고, 후에 계속 석성과 함께 의화지사를 추동했다. 조지고와 석성이 의화를 주장한 이유는 주로 명정이 방금 영하내란을 평정하여 재력과 군력 소모가 매우 컸고, 다시 일구와 한 판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명군이 노사원정하여 수토가 불편하고 양향이 궁핍하며 병원이 부족했다.

만력 25년(1597) 1월 30일, 병과서과사 형과좌급사중 서성초가 상소하여 석성과 조지고가 책봉 과정에서 통동기폐했다고 탄핵했다. 조지고가 주언하기를: "동봉일사는 경략 송응창의 청으로 시작되어 상서 석성이 허락했는데, 언관이 다투니 일이 거의 이루어지려다 패하러 했으나 성단으로 언관을 조구하여 의론이 비로소 그쳤다. 왜사가 이미 이르러 파봉이 그치지 않고 또 이종성의 사도사가 있어 의론이 더욱 많았으나 다행히 천위가 진노하여 종성을 체제하고 따로 양방형을 보내니 봉사가 이루어졌다. 금일 부산의 병이 철수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전사를 색구하기 때문이어서 이사가 지체되어 돌아오지 못하고 사은이사가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체를 헤아려보면 일본이 이미 왕경에서 물러나고 또 왕자, 배신을 돌려보냈으니 오늘날 조선도 마땅히 전사하여 수목하고 옛 원한을 풀어야 하는데, 성초가 반드시 흥병동중하여 화단을 열려 하니 참으로 그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보아하니 화담도 신종의 뜻이었다. 조지고가 기휴할 때 신종도 친구 말하기를 "봉왜일사는 원래 본병이 집의한 것이고 짐의 마음이 독단한 것인데 무슨 기오몽폐가 있어 깊이 변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보아하니 당시 주화파의 진세가 비교적 강대했다.

조선인 조정남의 『난중잡록』에 기록하기를: "송응창, 이여송이 심유경과 왜가 강약 허혼하는 것 때문에 상가 여자로 대신 보내려 했다. 또 천조에 아뢰기를 '왜노가 이미 다 바다를 건너고 오직 일이진이 부산에 머물러 봉왕준공의 명을 기다린다. 경란지방은 사마가 오래 머물기 어려우니 청컨대 요양으로 철환하여 완급을 기다리자'고 했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제출한 의화 7개 조건 중에는 조선 토지 할양과 명정과 화친을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심유경 등이 조정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양쪽을 숨기며 민간 여자 하나를 골라 대명공주로 가장하여 넘어가려 했고, 일군이 이미 다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철수했으며 오직 한두 지 군대

만 부산에 머물러 명조의 봉왕준공 명을 기다린다고 거짓 보고했다. 심유경은 심지어 대담하게 일방의 사은표문, 천자에게 조선을 처분해달라는 표문 등 문건을 위조했다.

조선 측면에서는 당연히 의화를 반대했는데, 이조 배신 황신이 비밀리 책봉에 불리한 소식을 조선에 전해주었고, 조선이 그의 정보를 받은 후 즉시 사신을 명조에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만력 25년(1597) 1월 25일과 2월 5일, 조선국왕 이연이 두 차례 일구의 진공을 보고하고 명군의 구원을 청했으며, 명정이 비로소 책봉지사가 실패했음을 알았다.

같은 해 2월 8일, 어사 주공교, 황기현이 석성과 조지고를 기군망상으로 탄핵했다. 이어 병과좌급사중 서성초가 상소하여 조지고, 석성을 탄핵했다. 절강도어사 하이건도 "간보오국하니 조지고를 파면하기를 구한다"고 상주했다. 3월에 남경 절강도어사 황화수 등도 상소하여 석성, 조지고를 파척하기를 구했다. 조지고가 물러나기를 구했지만 황제가 모두 주를 준허하지 않았다.

만력 25년(1597) 6월, 장위가 형개를 병부상서 겸 계요총독으로 추천하여 수만 대군을 통솔하고 압록강을 건너 원조항왜했다. 형개는 주전파였는데, 그가 조선 전선에 도착한 후 즉시 심유경 구속을 명령했고, 양원남원전투 패배 후 석성이 기군기국죄로 체포되어 옥에 갇혔으며, 후에 석성이 옥사하고 심유경이 대벽에 좌했다.

조지고는 비록 처벌받지 않았지만 병으로 집에 누워있었다. 조지고의 사상은 동림당에 편향되었는데, 후에 그의 학생 정응태가 동정장사를 무고했고, 형개가 이 때문에 정응태와 격렬한 쟁론을 벌여 그를 "화당"이라 칭하고 정응태 뒤에 서 있는 세력이 "남인"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신종이 속임을 당했음을 발견한 후에도 돌아서서 일구와 재전을 지지했다. 보아하니 당시 여론이 조지고, 석성, 송응창, 심유경에게 극히 불리했다.

『갑을임언』 중 『조상국』에 호응린이 병중인 조지고를 문병간 일을 기록했다:

〉 조상국이 동사로 우수했는데 때로 겸손 일어나지 않았고 나는 가서 방문했다. 마침 일자 왕생, 의자 이생 두 사람이 좌중에 있었는데 상국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원기가 언제 궁을 나갈까?"라 하고 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언제 고향이 몸을 떠날까?"라 했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석상서로 하여금 경을 나가게 하면 곧 원기가 궁을

나가는 것이고, 심유격으로 하여금 머리를 버리게 하면 고향이 몸을 떠나는 것이다"라 했다. 상국이 이에 묵연했다.

조지고는 절강 난계인이고 호응린은 금화인으로 두 사람의 교류가 많았으며 호응린은 조지고에게 꽤 상찬받았다. 호는 『반도가위대학사조공부』를 지어 조가 건립한 공업을 찬송할 때 조지고가 영하 효배 반란 평정과 원조전역 심지어 일본 기봉 등 사건에서 건립한 공훈을 언급했다. 그래서 호응린은 봉공 실패의 책임을 석성과 심유경에게 미뤘는데, 물론 소설에서 조지고에게도 조롱의 뜻이 없지 않았다.

심덕부의 조부와 호응린의 부친 호희가 모두 기미 동년 진사로 두 사람의 심유경에 대한 관점도 유사했다. 『명신종실록』 전기는 장유현, 엽향고, 류일영, 한근, 사계해 등 동립당인이 주지하여 편찬했고, 후기에는 또 고병겸, 정소식, 황립극, 풍전 등 환당 인물이 있었으며, 『만력소초』를 편찬한 오량은 오중행의 차자로 역시 동립당인 편에 섰다.

심유경이 처형된 후 주전파가 상풍을 차지했고, 주화파 조지고, 석성, 송응창이 지책을 받았지만 동립당인을 주로 하는 주화파와 당시 절강 문인 사대부들이 조지고, 송응창을 위해 변호하려 했으며, 그들이 심유경의 흑흑을 받았을 뿐이고 책임은 모두 심유경에게 있다고 여겼다. 전겸익은 당시 동립당 당괴로 증 심일관과 수보를 다투다 실패했기 때문에 "화당"의 입장에서 원조 전적을 전면 부정하고 정응태의 말을 믿으며 심유경의 공로를 긍정했다.

2. 송응창(宋應昌)

송응창, 자는 사문, 별호는 동강으로 절강 인화인이다. 가정 44년(1565) 진사. 융경 5년(1570) 3월 호과급사중이 되었다. 석성이 한때 친히 조선에 가서 왜를 막으려 했는데 이 생각이 깨진 후 친신 송응창을 천거했다. 이유가 둘 있었다: 첫째는 송응창이 병부우시랑으로 자신 결의 사람이어서 쓰기에 수월했고, 둘째는 이때 내각 수보 왕석작도 송응창을 천거했기 때문이다. 석성과 왕석작은 정견 충돌이 없었는데, 장거정 전권 시기에 두 사람 모두 상소하여 장거정을 탄핵한 적이 있었고, 더욱이 이런 거조는 또한 오래된 각부 쟁단을 완화할 수 있었다. 왕석작이 송응창을 천거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남인적관원으로 지연상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송응창이 경략으로 임명된 후 즉시 신종에게 상주하여 왕석작 문하 출신인 직방사 주사 원황, 무고사주사 류황상을 찬화로 임명하기를 희망했는데, 이로써 왕석작에게 아부했다. 이후 왕석작이 모병으로 집에 돌아가 모시게 되고 조지고가 뒤이어 입각했다. 조지고와 송응창은 동향으로 인해 역시 송응창이 경략직을 맡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응창은 변무 경험이 전혀 없고 군사를 모르기 때문에 조중 적지 않은 사람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9월 9일, 송응창이 "언급당한 바 되어 경략방왜의 명을 사양했지만" 신종이 "그 충신임사를 가상히 여겨 마땅히 언으로 자저해서는 안 된다 하며 사양을 윤택하지 않았다". 어사 곽실이 상소하여 다시 "경략이 불가한 자 7"을 논했지만 신종이 여전히 지지하며 특히 조서를 내리기를 "구경과도관들이 의위관망하니 회의할 필요 없다. 곽실이 사적으로 방해하니 극변 잡직으로 강등시켜 쓰고, 다시 독요하는 자가 있으면 아울러 궁구한다"고 했다.

제독 이여송은 백전노장으로 오래 사장을 경험했고 또 방금 영하지변을 평정하고 돌아왔는데 한 외행의 절제를 받는다니 자연히 불복했다. 『명사』에서 "여송이 새로 공을 세워 기세가 더욱 교만해져 경략 송응창과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조선 통역 홍순언에게 직언하기를 "무관이 사람의 제재를 받아 스스로 전단할 수 없다"고 했다.

당시 원조의 장관과 사병 중에는 주로 남방에서 차출된 원래 척계광이 이끌던 부대와 이여송 속하의 요동 사병으로 구성되었는데, 남병은 송응창을 따르고 북병은 이여송의 명을 받았으며, 송·이가 화목하지 못하여 이로써 남북병이 수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빚었다. 명군이 평양을 공격할 때 이여송이 크게 소리치기를 "먼저 성에 오르는 자에게 은 5천을 상한다"고 했는데, 남병 제장들이 분용쟁선하여 먼저 성벽에 올라 일군 깃발을 뽑았지만 서공할 때 이여송은 수공을 북군 장령 장세작에게 돌려 모순이 격화되고 남병의 불평을 불러일으켜 "제독이 평양을 공격할 때 많이 조선 인민을 취하고 밭을 깎아 급을 참하여 적수로 삼았다"는 유언을 산포하게 하여 이여송이 탄핵을 당하게 했다.

차보 장위는 송응창이 경략을 맡는 것에 불쾌해하며 출병지사를 완판해야 한다고

여겼다. 송응창이 요동에 간 후 요동순무 학걸과 결호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학걸에게 말하기를 "난 장상공이 일찍이 서신을 보여 정왜 일사가 마땅히 경거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교이다... 고로 오늘의 사는 실로 만부득이이다. 노공조가 만약 정부에 서신이 있다면 부디 피의로 달하게 해주면 다행히 부녕의 영애가 깊고 정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여 학걸이 거간조화하기를 희망했다.

병과급사중 장보지가 송응창이 "우준"하다며 심유경의 말을 듣는다고 탄핵하자 석성이 마상 변박하여 송응창의 이런 거조를 "조선회복지고... 무협사계"라 했다. 장보지가 다시 상소하여 "이는 모두 심유경이 그 설로 응창을 그르치고 응창이 다시 그 설에 빠져 각부를 그르쳤으며, 석성이 평소 충성이라 일컬어지나 깊이 살피지 않아 그릇 그르쳤다"고 했다.

장보지는 원황, 류황상과 모두 왕석작이 선발한 사람으로 왕석작이 재임할 때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지만 치사 후에는 왕석작 및 그 문생에 대한 탄핵이 하늘을 덮을 듯이 쏟아졌다. 장보지는 또 죄책을 심유경 한 사람에게 돌려 송응창이 기만당했고 석성이 또 송응창에게 현혹당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광주도어사 양일봉은 주화파를 일망타진했다: "송응창, 석성, 고양겸, 류황상이 서로 기망하니 청컨대 법사에 내려 신속히 조사하여 분별하여 전형하라."

하남도어사 주공교가 상소하기를: "만약 성이 집미불오하고 강필자용하여 마상지비식을 우양하고 서설을 서수지간에 폐하며 인순오국한다면"; 또 조지고를 탄핵하여 "종사대계를 불유할 뿐 아니라 곡닉사교하여 인용동향 송응창이 거패하니 내공쟁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탄핵문들은 모두 측면에서 조지고의 송응창에 대한 태도를 표시했다. 창끝을 병부상서 석성과 내각수보 조지고에게 직접 겨눴다.

내각이 계속 언관의 탄핵을 받는 동시에 내부에서도 분화가 시작되었다. "봉공" 문제에서 장위와 심일관은 반대 의견을 가졌고, 조지고와 병부 석성은 모두 "봉공"을 주장했다. 총병 마귀가 하루에 연속 11승을 거두어 본래 승세를 타고 부산성을 점령할 수 있었지만, 이때 주전파 이여백이 아직 전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위와 심일관이 요양순무 양호에게 지시하여 추격하지 않게 했다. 그러나 이여백이 전선에 도착했을 때 왜적들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얻어 정비했고, 명군을 크게 패배시켰다. 그 후 이 일이 찬화 정응태에 의해 발각되어 양호와 장위가 처벌을 받았지만 심일관

은 처분받지 않았다. 후에 심일관이 반격하여 마음대로 정응태를 탄핵했고, 이후 "지
고가 말에 휩쓸릴 때마다 곧 상소하여 변명하고 퇴직을 구했으며" 더 이상 변박하지
않았고, 심지어 봉공이 실패하고 석성이 옥사하고 장위가 양호 때문에 폄적당했을
때도 조지고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따라서 주전파의 붓 아래서 송응창은 추악하게 그려졌다. 심덕부의 『야획편·병부·
참교기』에서: "관백이 조선을 침범하자 조의가 기울어져 나라를 구원했다. 당시 송동
강 응창이 소사마로 독사전정했는데, 송은 곤망이 없고 큰소리칠 수 있어서 이듬해
내계가 있을 때 물색하는 자가 있어 이 때문에 동사를 힘써 맡았다." 심지어 술사의
말을 듣고 귀괴로 왜를 몰아내고, 심지어 또 장사들로 하여금 풀을 쌓아 연기를 피워
왜노를 막게 했다:

〉 송상강(응창) 시랑이 조선을 경략하며 장사들에게 명하여 풀을 쌓아 연기를 피워
왜노를 막게 했다.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런 병법은 옛날에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하
니, 풍개지 선생이 말하기를 "이 법은 육도삼략에 실려 있지 않고 오직 『맹자』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다. 좌객들이 놀라 이유를 묻자 풍이 천천히 말하기를 "첫 편에 바로
있다. 제나라 사람이 연나라를 치니 이기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니 한 자리
가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청초 담천이 『국궐』에서 쓰기를: "응창은 방략이 적었다. 그가 산동을 무를 때 등래
로 행부하며 닭알 수만 개를 징발하여 왜선에 던지면 서있을 수 없다고 했다. 요양에
있을 때는 방사 심군취의 말을 믿고 몇 길이나 되는 단을 쌓아 올라가서 말하기를
'3일 후 천병 10만이 왜를 멸할 것이다'라고 했다." 총결하면, 당시 언관과 여론은
모두 송응창이 위망이 없고 군사를 모른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절강 문인 사대부들은 여전히 송응창을 지지했다. 출정 초기에
가흥인 이응징이 『왕사동원조선을 듣고』라는 시를 지었다:

재관 십만이 왜를 평정하려 하니, 사마가 어찌 한나라 복파와 같을까.

살기가 새벽에 현토군에 이어지고, 장군이 밤에 백랑하를 건넌다.

또한 모름지기 직접 이기도를 깨뜨려야 하니, 헛되이 침두가를 전하게 하지 말라.
예악의 동변 기자국에서 왕사가 급히 간과를 씻어내리라.

작자는 왕사가 왜적을 소탕하여 왜적의 소굴인 대마도를 직접 공격하기를 기대했다. 원황의 『별석사마』 첫 번째 수에서는 석성을 용에 비유하여 "흰 구름이 연습 같이 긴 성을 둘러싸고, 동쪽으로 만 리 날아가며 오래도록 용을 따른다"고 하고, 세 번째 수에서는 백락에 비유하여 "오래도록 백락과 작별하니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고 했다. 송응창이 사직하고 집에 있을 때 원황이 가서 방문하며 『송동강을 방문하다』를 지어 "주저하며 서서 차가운 매화 그림자를 닮았으니, 다만 6월 서리가 다시 날까 걱정스럽다"고 하여 송응창이 받은 원통함에 불만을 표하고 미래에 대해 낙관하지 않았다.

호주인 모곤이 송응창에게 증정한 『왜구가 조선을 침구하니 천자가 소사마 송동강 공에게 명하여 병을 이끌고 경략하게 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조정으로 돌아오니 내가 교인가 한 수를 지어 옛날 개가의 끝에 붙인다』는 시에서:

창을 들고 십만이 조선으로 갔으니, 만 리에 요가가 개가를 연주한다.
금인 좌담으로 상상을 추진하고, 비의 세습받아 중천에서 내린다.
근래 범려가 주불을 사양했다고 들으니, 홀로 서시를 안고 그림배에 들어간다.
고인과 함께 만무를 싫어하지 않으니, 낙신부초를 꽃 앞에 바친다.

작자는 송응창의 동정 전공과 공성실퇴에 대해 모두 긍정과 찬미를 주었다.

송응창이 봉공 실패에서 진 책임에 대해 절강인과 송응창의 친구들이 극력 변호했다. 소흥인 제갈원성의 『양조평양록』 권4 "일본상"에서 "석사마가 심유경의 사설에 현혹되어 다시 왜영에 보내 봉의를 의논했다"고 하고 응창은 화담을 반대하여 "나는 명을 받들어 왜를 토벌하니 오직 전쟁만 알 뿐이다"라고 하며 심유경을 꾸짖어 "지금 의논하는 것이 평양만 물러가는 것은 이는 계책으로 우리 군사를 늦추는 것이니 전쟁이 있을 뿐이다! 너는 잘 목숨을 보전하고 초초히 하지 말라!"고 했다. 후에 유경이 왜영에서 오니 의논이 처음과 같았다. 응창이 노여워하며 꾸짖어 말하기를 "적이 멀

망할 날이 없는데 어찌 감히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가?"라고 하며 힘사에게 명하여 유경을 백 대 때리고 장차 죽이려 했는데, 제독과 찬화가 유경을 석사마가 보낸 것이니 죽이면 화합하지 못해 일을 망칠까 두려워 힘껏 청하여 이에 군중에 가두고 "16일을 택하여 맹세하고 강을 건너며 군율 32조를 반포하니 일군이 숙연했다"고 했다. 보아하니 제갈원성의 붓 아래서 송응창은 확고한 주전파였다.

황여형의 『송공행장』에서는 송응창에 대해 더욱 많이 긍정하여 그가 일찍부터 변사에 관심을 가지고 장재가 있었다고 했고, 조승훈 원군이 전멸한 후 "중외가 흥흥하여 계획할 바가 없었고, 조정에서 상격을 내걸어 능히 조선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은 만냥을 상하고 백작을 봉하여 세습시킨다고 했다. 조신들이 모두 전전긍긍하며 감히 응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응창이 몸을 일으켜 나섰고, 갓 부임하자마자 곧 군기를 밝히고 주밀하게 배치하여 일군이 숙연했으며, 보는 자들이 모두 손을 거두고 놀라 감탄하여 말하기를 "송공이 행병함이 정돈되면서도 여유 있고 크면서도 소홀하지 않으니 참으로 경략이다"라고 했다.

그 중에 심유경의 의화를 저지한 것을 기록하기를: "석대사마(석성)가 또 계산하여 군사를 늦추고 서사가 정해지기를 기다려 심유경을 보내 봉공의를 가지고 가게 했다. 조서가 있어: 유경이 유격 직함으로 경략 군전에서 듣고 써라. 이에 이르러 길에서 공을 뵈니 공이 유경을 불러 앞으로 나아가 왜에게 돌아가게 했다. 왜가 봉공을 구하면 제일 마땅히 비사로 궐을 향해 전군이 부산으로 물러나 명을 들어야 할 것인데 어찌 감히 조선을 유린하여 우리를 요구하며 계략으로 우리를 늦추는가! 나는 명을 받들어 적을 토벌하니 전쟁이 있을 뿐이다! 너는 몸으로 법을 시험하지 말라! 유경이 혀를 움츠리고 갔다... 마침 유경이 왜영에서 오니 약관 의논이 처음과 같았다. 공이 눈을 부릅뜨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천병이 와서 태산이 달걀을 누르는 것 같으니 적이 멸망할 날이 없는데도 오히려 감히 거짓말로 나를 모독하니 너의 겁내어 나라를 욕되게 하는 죄는 마땅히 참해야 한다'고 하며 역사에게 명하여 유경을 군중에 결박하고 적을 토벌할 의논이 더욱 급박해졌다."

제갈원성과 마찬가지로 『송공행장』은 송을 확고한 주전파로 묘사했고, 더 논하기를: "그런데 의논하는 자들이 오히려 청봉철방을 공의 죄라 하니, 공이 경략 명을 받은 것이 20년 9월이고 심유경을 보내 시봉의가 왜에 들어간 것이 20년 7월인 줄

모른다; 계정봉이 23년 가을이고 공이 귀전한 것이 22년 봄이다. 그러면 공은 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하의 철방지의는 공이 대를 얻은 후 자연히 생긴 것이고, 공이 남긴 유병 1만 6천이 전경을 지키며 다투어 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소가 구비되어 있으니 어찌 옮겨서 공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 중산교지의 비방은 고금이 같은 감개이니 어쩔 것인가!"라고 하여 송응창은 봉공과 전혀 관계 없다고 했다.

『송공행장』에서 또 응창이 무술로 퇴병한 일을 언급하여 "당시 우리는 적고 적은 많아 군심이 황황했는데 공이 지휘함이 상세하고 여유로웠고, 우연히 신병 부술을 연마할 수 있는 자가 나와 모집하니 객들이 서로 보며 웃으며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공이 말하기를 '우선 시험해보자, 빌려서 우리 군을 안정시키자'고 했다. 공이 비밀리 만든 화전, 명화, 독화가 모두 정교하여 신에 들어갔고, 장사들이 시험해보니 곧 기이한 효험이 있어 군심이 비로소 안정되었다"고 했다. 남군은 척계광이 훈련한 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주로 화기에 능했고, 무술로 적을 몰아내는 것은 다만 군심을 안정시키는 권술일 뿐이었다.

황여형은 강서 진현인으로 『명사』에 기록하기를 경당 급사중 진치가 황여형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경당"은 주경 일파를 가리켜 절당에 속하니 황여형이 정치상 절당으로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여형은 동림당의 사적이 아니었고, 그는 일찍이 『동림십팔고현전』에 서문을 써서 서문에서 동림십팔고현의 지절품행을 긍정했다. 그러므로 그의 송응창에 대한 평가는 주전의 절당 입장에 서서 한 것으로 이미 과미의 혐의가 있으면서도 객관공정한 일면이 적지 않다.

송무징의 『구약집』 중 『동사야기』 일문에서 만력 21년(1593) 여름 명군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마가 많이 죽자 송응창이 평양에 주둔하며 가짜로 심유경을 일군 군영에 보내 의공하게 하고 은밀히 조정에 증명을 청했는데, 신종이 유정으로 하여금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여송의 뿔이 되게 했다고 기록했다. 5월에 일군이 왕경으로 물러가 6도 인마가 부산으로 돌아갔다. 6월에 일군이 화약을 의심하여 다시 진주를 노략했다. 송응창이 이여송을 보내 구원하고 또 심유경에게 명하여 일군의 위약을 책하며 속여서 말하기를 만약 부산으로 물러나면 마땅히 일본을 포봉할 것이라고 했다. 일구가 이에 고려 세자와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서생포로 물러갔다. 명군이 자량이 계

속되지 않아 의화하려 했고, 조신들이 다투어 의논이 격렬했으며, 송응창이 백구로 보증하여 봉이에 환이 없다고 청했다.

이 글은 만력 21년(1593) 8월 후, 12월 전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송무징은 화정인으로 절협으로 자허했으니 당연히 거짓말은 없을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심유경의 의화는 송응창의 지시를 받은 것이지만 송응창은 다만 연기일 뿐이고 사실은 적을 미혹시키는 책략일 뿐이었으나 후에 봉공은 그가 지지한 것이었다. 이 설법이 응당 비교적 실제에 부합할 것이니, 송응창은 실용주의자로서 응당 화전 사이에 의위했을 것이다. 때로는 의화를 빌려 적을 미혹시키는 것은 하나의 책략일 뿐이고, 때로는 정상급 상사인 조지고, 석성의 의지에 복종하여 봉공에 동의했다. 그는 심유경과 함께 당시 조선국왕 이연에게 통한받았고, 제갈원성, 황여형과 현대 역사학자, 절강 부양현성인 목봉림이 모두 "응창이 처음부터 주전하여 봉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없다"고 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양호(楊鎬)

양호는 자를 경보(京甫)라 하고, 하남 귀덕부 상구현 사람이다. 만력 8년(1580) 진사로, 누차 관직을 거쳐 우첨도어사가 되었다. 봉공이 실패한 후 조선이 원군을 요청하자, 대학사 장위가 "참정 양호의 재능을 극력 추천하며, 조선 군무를 맡겨주기를 청한다. 호가 부상을 당했으나, 또다시 탈정시사를 청하고, 아울러 형계를 총독으로 추천한다. 황제가 모두 따랐다"고 하였다. 대학사 장위의 천거로 형계가 총독이 되고, 양호가 경략이 되었다.

정응태는 호광 무창부 강하현 사람으로, 병부주사 벼슬을 했다. 무술년(1598) 정월에 군문찬화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절강 유격 진인과 중군 주승이 도산 전투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처벌을 받자, 양호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이에 정응태에게 참언을 하였고, 정응태가 그들의 무고를 믿고 1598년 5월 베이징으로 돌아간 후 양호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동정찬화주사 정응태가 '탐활상사, 양란권간, 결당기군(탐욕스럽고 교활하여 군사를 잃고, 난을 일으킨 권간이며, 당을 뺏어 군주를 속였다)'이라고 상주했다. 이는 요동순무 양호, 총병 마귀, 부장 이여매 등의 울산 패배에서 잃은 것이 무수하나 이를 숨기고 실상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논한 것이다. 또한 차보

장위, 삼보 심일관이 호와 밀서를 주고받으며 교결하여 속인 것이다."

비록 총독 형제와 오유충, 모국기, 허국위 등 수십 명의 장령들이 상소하여 양호를 변호하고, 조선 국왕 이연도 진정소를 올렸지만 신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사·장위전』에서는 신종이 노하여 장위에게 "호는 경의 밀계로 누차 천거하여 탈애수임했다. 이제 봉당을 이뤄 속이고 숨겨 국가를 욕되게 하고 위엄을 손상시켰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기록한다. 과연 장위는 탈직되어 한가히 지내게 되었고, 양호도 파면되어 귀국했다.

조지고는 봉공 일이 실패한 후 7개월간 강제로 한거하다가 갑자기 조정으로 돌아와 정무를 보게 되었다. 정응태는 조지고의 문도로, 그가 정씨로 하여금 양호를 탄핵하게 한 것은 장위를 배척하려는 의도였다. 봉공의 의논이 실패하고 심유경이 살해되며 석성이 하옥되고 수보 조지고가 강제로 한거하게 되었다. 조선 전사가 다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장위가 양호를 천거하여 조선 군무를 정리하게 한 것은 자연히 화당 조지고의 불만을 샀다.

양호는 자신이 말하기를: "천하 대사가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조각로(조지고)는 원래 봉사를 주장한 사람인데, 7개월간 탄핵을 받아 병으로 집에 있다가 지금 갑자기 나와 정무를 본다. 정응태는 조각로와 가까운 사람으로, 지금 장각로(장위)를 모함하려 하여 또 한바탕 헛소리를 만들어낸다. 내가 무고당한 것이야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예언하기를: "하늘이 심유경을 낳아 많은 일을 그르치고 많은 사람을 그르쳤다. 너희들이 보라, 앞으로 반드시 공전으로는 일이 안 되고 기미가 상책이라는 논의가 분분히 일어날 것이며, 군정이 동요할 것이다"라고 했다.

양호는 또 이덕형에게: "내변의 논의가 크게 변하여, 과관이 또 상본으로 장각로를 참하고, 본병이 또 상본으로 이여매를 참하니 군의가 분분하다. 조각로는 봉을 주장하여 일을 그른 사람이다. 전일 황장자의 관혼례 때 각신들의 논의가 또 달랐는데, 이 기회를 타서 간당의 복심들이 결속하여 반드시 장각로를 제거하려 하며 말하기를: '동사를 그른 자는 양모이고, 양모를 잘못 천거한 자는 장모다'라고 한다. 몰래 그 무리들을 사주하여 상본을 올리게 하고, 조각로가 그 중에서 성지를 표하하니, 장각로가 이미 그 자리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하늘을 우리러 탄식하며: "밖에는 왜적이 있고, 안에는 간적이 있으며, 적당도 많으니, 천하사가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과연 조지고가 동산재기하여 여전히 주화를 고집했다. 이 일은 내각 투쟁과 연관될 뿐만 아니라 남병과 북병의 불화에도 관련이 있었다. 조선 국왕 이연이 이덕형에게 양호가 탄핵받은 원인을 물었을 때, 이덕형은 "대개 울산 전역에서 남북병이 공을 다투어 정의가 어긋나 이에 이른 것이다"라고 답했다. 형제는 산동 사람이고 양호는 하남 사람으로 북방 지주집단의 이익을 대표하여 북방 장령인 이여매 등에게 더 친근하고 남방 장령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원하여 남병들의 불만을 샀다.

화담을 주장한 동립당은 본래 조선 원조를 반대했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원조 전과를 전면 부정했다. 옹명우의 『일본』이라는 글에서는 원조 전쟁이 돈 700만을 낭비했다고 비판하며 "끝내 그 요령을 얻지 못하여 사마물고가 무수하고, 조선인이 다시 병화를 겪었다. 지금까지 '왜소병전의 요'가 있으니, 다행히 평수길이 병사하여 비로소 반사하고, 조선도 점차 스스로 보전하게 되었다"고 했다. 옹명우는 동립당인으로 위충현이 권력을 잡은 기간 동안 누차 폄척되고 심지어 유배를 당해 원조에 반대했다.

더욱 불행하게도 만력 47년(1619) 2월 양호가 병부우시랑으로 요동을 경략하여 10여만 명으로 4로 나누어 출사하여 후금을 공격했으나 살이호에서 복격을 당해 전군이 전멸했고, 승정 2년(1629) 양호가 처형당했다. 이것이 더욱 그의 조선에서의 도산 전투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명신종실록』은 완전히 정응태의 말을 채택하여 도산 전투를 서술할 때 살이호 전투를 보서하여 도산 전투를 함께 부정했다.

후에 청인 곡응태의 『명사기사본말』 권62 『원조선』이 『실록』의 서법을 계승하여 원조 군대의 전공을 전면 부정했다. 담천의 『국궐』, 왕홍서의 『명사고』와 청 관수 전본 『명사』가 모두 『실록』의 말을 답습했다. 명사 수찬의 화어권이 기본적으로 동립당인들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고, 동시에 청초 정치의 필요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다. 손위국은 지적하기를: 역대수사에서 가장 관건적인 문제는 본조의 합법성을 조성하는 것인데, "건주여진이 바로 만력조선역 기간 중에 일어났고, 이후 점차 명조와 적이 되었다. 명조의 조선 전장에서의 전사에 대해 비록 청조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조선 전장에서의 이 명조 군대가 후금의 요동 전장에서의 대수가 되었으므로, 청조 관방에서는 만력조선역의 명군에 대해 선천적으로 폄척

하는 심태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동림당과 전겸익이 정응태를 민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의식형태의 체현이었다.

물론 정응태가 양호를 탄핵할 때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심덕부는 정응태가 "재기가 있어 일을 맡을 수 있다"고 긍정하면서도 그의 상소가 "동정의 문무를 추악하게 비방하여 형곤전(계) 이하로 한 사람도 면할 수 없게 했다"고 비판하며 동정 장졸들의 전공을 말살했다고 했다. 후에 정은 결국 탐묵으로 파관되었다.

청초 사람들은 비교적 양호를 동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송락의 『균량우필』 하권에는 양호가 "전공이 탁저하다"고 기록하고, "군교 중에 공에게 득죄한 자가 있어 찬화 주사 정응태에게 호소했는데, 응태가 평소 공을 좋아하지 않아 이에 상주하여 탄핵했다. 국중 대부사들이 모두 합사하여 공의 억울함을 칭송했다"고 했다. 양호가 참소를 받아 파귀된 후 조선인들이 그를 그리워하여 사당을 세우고 비를 세워 시를 지어 그 일을 노래했다.

청초 무명의 전기 『철궁연』에서는 기주총병 기비룡의 아들 계신이 서향과 채하를 강점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몰래 관백과 통하여 서향의 아버지 광진을 모함한다고 썼다. 제독 웅상이 광충과 황보강을 좌우선봉으로 명하여 왜구를 섬멸하고 관백을 죽여 여러 사람이 봉작되고 유정인이 마침내 권속이 된다고 했다. 동강은 극중 기비룡이 일본과의 화의 시 도망간 정사 이종성을 가리키는 것 같고, 웅상은 암히 양호를 가리키며, 광진은 원황이라고 생각했다. 이 전기에서 이종성은 성격이 비열하고, 양호는 정면으로 찬송하는 형상이다.

결론

종합해보면, 명말청초의 문학과 사적 서술은 명대 당쟁의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원조전쟁에 대한 전반적 평가든 관련 인물들의 역사적 정론이든 모두 상당한 분열, 심지어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준다. 명대는 중엽 이후 정치투쟁이 상당히 복잡하여, 당파지쟁 외에도 문물모순, 남북충돌, 향의사생동문 등 갖가지 요소들이 있었고, 이는 명대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이 상당히 복잡한 면모를 나타내게 했으며, '임진왜란' 소재의 문학작품은 그 중 전형이었다.

상술한 작품들 외에도 유정의 전공을 서술한 하씨전기 《대도기》가 있으나 이미 일실되었다. 원황의 항왜 공적을 부각한 몽춘원주인의 《입명설》은 지금 잔권만 남아있다.

그러나 청대에는 중일 양국이 모두 쇄국정책을 펴서 기본적으로 단절상태에 처해 교류가 많지 않았고, 또한 청정에서 결당영사를 엄금했으며, 시과경천으로 인해 청인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이 이미 점차 모호해졌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문학 서술은 점차 허구를 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주로 재자평왜의 연의를 빌려 작가의 공명입엽에 대한 꿈을 표현했다. 예를 들어 명 유민 진침의 《수호후전》, 하경거의 《야수폭언》, 주매숙의 《매우집》 권4 《철아》 등이 모두 원조사영을 다뤘지만, 그 중에서 명대 당쟁의 흔적을 보기는 어려웠다.